

#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소설 연구\*

- 이주 정착 양상을 중심으로 -

정 덕 준 · 정 현 숙(한림대)

##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전망 부재와 지식인의 갈등 |
| 2. 정주의식과 민족의 생존 방식     | 5. 결어             |
| 3. 만주국 정책의 허구성과 민족의 현실 |                   |

## 1. 서 언

이 연구는 재만 조선인 소설에 나타난 이주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만 조선인 소설의 문학적 성과와 문학적 의의를 밝혀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1)</sup>

주지한 바와 같이, 재만 조선인 소설은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이주민이면서 피지배민이라는 생존 조건 속에서 생성된 문학이다. 따라서 재만 조선인이 감내해야 했던 이러한 현실 상황은 재만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A00056).

1) 재중 조선족 학계 일부에서는 재중 조선족문학은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문학을 모태로 하여 형성 전개되었고, 따라서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문학은 한국문학이 아니라 재중 조선족문학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물론, 해방 이후 재중 조선족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문학은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조선인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중성은 그동안 재만 조선인문학에 대한 친일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재만 조선인 소설을 온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재만 조선인 문단과 이주민들이 처해 있던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엮힐 수밖에 없었던 착종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재만 조선인사회는 ‘오족협화’를 표방하는 만주국 당국과 ‘내선 일체’를 강요하는 조선총독부 사이의 알력과 이중적인 압력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sup>2)</sup> 재만 조선인 문학도 이러한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래 전개되었던 것이다. 재만 조선인문학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만선일보』 문예란은 일본인 심사를 거쳐 게재되고,<sup>3)</sup> 모든 문예 활동 또한 만주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현실이 그 한 예이다. 바꿔 말하자면, 재만 조선인문학은 생존 그 자체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절박한 상황에서 이주 조선인이 선택한 각양의 생존 방식에 대한 기록이요, 이주 정착사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이들 문학의 성격과 성과를 온당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만 조선인 소설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였고, 이들 소설을 이주문학으로서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 또한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 때문에 재만 조선인 소설에 대한 정당한 문학적 해석과 평가, 그리고 온당한 자리 매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주 조선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통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재만 조선인

2) 다나카 류이찌, 「일제의 만주국 통치와 재만 한인 문제: 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상극」, 『만주: 통합과 저항, 그리고 일상』, 만주학회, 2003, 68-69쪽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김재용(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93-116쪽 참조.

4)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 대한 논의로는 김종호,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1995/ 장춘식,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 연구』, 민족출판사, 2004 등이 있다.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이주·정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만 조선인 소설의 문학적 성과와 그 문학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재만 조선인 소설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동시대 재만 조선인 사회의 보편적 가치 지향과 어떻게 상호연관되는지를 밝혀보는 데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리고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발표된 소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이 시기 소설들이 만주국 건국 이후 이주 조선인들의 생존 조건, 즉 '오족협화'와 민족 단위의 생존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만주국 정책에 대한 수용과 부정이라는 양가의 의식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주 조선인들의 다양한 대응방식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재만 조선인 소설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2. 정주의식과 민족의 생존 방식

만주국 건국 이후 재만 조선인은 이전과는 다른 생존 조건에 봉착한다. 만주국 건국 초기, 당국이 내세운 갖가지 정책은 사실상 일제가 만주에서 정치·경제적인 통치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이주 조선인은 더욱 간고한 상황에 직면한다. '오족협화'에 따라 그동안 치외법권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철폐되고, 국적 문제와 토지상조권 문제 등이 해결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한족·만주족·몽고족은 물론 일본인과의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일제는 개척 이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주정책을 강행, 만주에는 이주 조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sup>5)</sup>하면서 갖가지 사회 문제

5) 일제의 개척 이민정책에 따라 1933년에서 1936년까지 3년 동안만 이주민 수가 67만 4천명에서 88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1973, 95쪽.

들이 발생하고, 당국은 이를 우생학적 지배논리의 논거로 삼아 다양한 식민지 정책을 시행한다. 실업자 급증, 아편 중독, 밀수 등 혼란한 사회상은 왜곡된 이주정책에서 연유하는 결과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들 조선인을 우생학적 열등분자로 구분하고 각종 계몽정책을 펼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통제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소설은 초기 이주민들이 겪은 간고한 수난사에 주목, 이주·정착사를 재구하고 확고한 정착의지를 담아 내보인다. 안수길의 「벼」, 현경준의 『선구시대』, 김창걸의 「암야」 등이 그러하다.

안수길의 「벼」는 초기 이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비극적 실상을 증언한 작품으로, 수전 농사와 국적 문제라는 이주 조선인 사회의 당면 과제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설이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조선 이주민들이 중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농사를 지어, 지주와 중국 당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중국은 이주 조선인들을 이용하여 수전 경작의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이주 조선인들을 앞세운 일제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지주 ‘방치원’과 관리 ‘소현장’은 각각 이주 조선인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만주국 정부가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적극적으로 장려, 1936년 ‘만선척 식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주정책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것 등은 이러한 효용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전 농사에 종사하는 중국인 수가 점점하고 중국의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온갖 희생을 겪으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해온 조선 이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농토를 잃고 쫓겨나는 처지에 이른다. 특히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인 북벌이 시작되고, 국민당의 훈령에 의해 장학량이 만주 지역의 일본 세력을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이주 조선인 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되고,<sup>6)</sup> 항일의식이 강한 중국 관리들은 이주 조선

6)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1937~1945년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사

인들을 구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7)</sup> 「벼」는 이러한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이주 조선인들이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생존 조건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매봉둔’에 이주한 조선인들이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면서 논농사에 성공하고, 학교를 세워 정착민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중국 당국에 의해 좌절되고 급기야 마을을 떠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그것이다.

그동안 「벼」에 대해서는 식민주의에 순응한 작품으로 민족의식이 희박하다는 비판적 지적도 있고,<sup>8)</sup> 이주 조선인 농민의 ‘만주에 뿌리 내리기’라는 정착과 생존의지가 정치적인 차원마저도 넘어서는<sup>9)</sup> 소설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당시 만주라는 공간의 현실에 대응하는 이주민들의 생존 방식이다. 당시 만주는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 기타 서구의 여러 나라가 정치·사회적으로 서로 얽혀 있었던 복합적 공간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는 만주국을 세우고 세력을 넓혀나간다. 주인공 찬수는 나까모도의 협조 아래 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중국군인들 앞에서 “학교를 폐쇄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시일을 천연하여 나까모도를 중간에 넣어 길립영사관에 매봉둔 사정을 진정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 짓는 것이 순서라 생각”<sup>10)</sup>한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서술은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친일시비의 발미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 조선인들이 이주민과 피지배민이라는 이중의 탄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제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모순적인 상황을 정직하게 드

2005, 148-149쪽

7)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민족주의 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9, 34-39쪽.

8)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이상경, 「간도체험의 정신사」, 『작가연구』 새미, 1996. 참조.

9) 한수영, 앞의 글 151쪽

10) 안수길, 「벼」, 『조선민족문학대계 10, 소설집 안수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0, 270쪽.

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꿔 말하여, 이것은 생존을 위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주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일 뿐, 친일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은 재만 조선인에 우호적이었던 한현장과는 달리 ‘매봉둔’을 축출하는데 앞장서는 소현장에 대한 기술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소현장은 “종래의 매관매직의 부패한 정치를 쇠신하고 삼민주의에 의거한 새롭고 힘센 정치를 펴야 된다고 지방에는 소위 정예분자를 발탁하여 파견하였던”<sup>11)</sup> 국민당의 정책에 의해 현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 그는 국책에 충실하며 반일사상이 강한 진보적인 민족주의자로서 조선 이주민들을 일제의 침병으로 확산하고, 이들을 몰아내고자 한다.

그의 지론으로 한다면 조선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령사관>(領事館)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조선 사람을 민국에 입적시키고 중국옷입기를 강조하여 자기나라 백성으로 취급해버리나 소현장의 지론은 그런 미지근한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중국복을 입으나 국적에 드나 조선놈은 어디까지든지 조선놈이고 조선놈인 이상 일본신민으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장함은 당연한 일로서 여기에 비로소 영사관설치가 문제되며 영사관 설치가 된다는 것은 곧 일본의 정치세력이 이 나라에 인을 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sup>12)</sup>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소현장 같은 중국 관리의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적개심, 왜곡된 인식을 가감 없이 제시함으로써 당시 이주 조선인들이 처한 실상을 뽐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주 조선인들은 ‘치발역복(薙髮易服)’과 ‘강제 입적’에 시달리는 한편, 이들의 국적 문제와 생존권은 중국과 일제의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었다. 말하자면, 이들 이주민들은 정치적인 타결 이외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

11) 안수길, 앞의 글, 259쪽.

12) 안수길, 앞의 글, 261쪽.

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셈인데, 『벼』는 이러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벼』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주 조선인을 둘러싼 조선·일본·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균형 잡힌 객관적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만주 지역에서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배일사상이 고조되면서 이주 조선인들은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위협받게 된다. 중국·일본·조선의 정치적인 입지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당시 이주민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일본 영사관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벼』는 체제에 순응하는 생존 논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만주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강한 정착의지를 반영한 소설이다.

현경준의 『선구시대』는 이주 초기의 정착의지, 중국인과의 충돌을 극복하면서 만주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만선일보』에 195회에 걸쳐 연재(1939. 5. 12~12. 1)된 장편소설이다. 안수길의 『북향보』보다 5년이나 앞서 개척 이주민들의 수난사와 정착의지를 폭넓게 형상화한 장편소설<sup>13)</sup>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아쉽게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연재분 195회 「망향(십)」뿐이다.

「왕덕삼의 계획이 그렇게 실현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기준이는 근우의 그 말에는 대답을 안주고 도로 승철이 쪽으로 돌아 앉는다...(중략)... 승철이,

우리가 이 땅으로 찾아온 건 결코 호강에 겨워서 놀이를 온 것은 아니요. 모두 다 원대한 포부를 품고 넘어온 것이 아니요 일시의 흥분이나 사소한 일개인의 사정에 얽매여 그 원대한 포부를 저버린다는 것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오..... 승철이 고향이란 결코 다시 갈 수 없는 그 곳만 고향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새로운 고향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하지 않소? 그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온 것이라면 오늘날의 험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야 하고 고해도 건너야하지 않소? 아무리 괴롭더라도 참아주 지금은 이렇게 괴롭더라도 한 때는 꽃피는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여기서 기준이는 잠시 끊고 숨을 돌린 후 다시 내려 앉는다.

13) 장춘식, 앞의 책, 81쪽.

「그리고 아까 내가 영수평 중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소 거기도 뜻있는 좋은 청년들은 있으니, 만사가 그렇게 왕가의 뜻대로 될 것은 아니오. 일부의 반대는 있는 듯하나 청년들은 그것을 잘 놀러가고 있으니까. 내일에라도 갈 수만 있다면 들어서 찾아가서 청년들을 만나는 게 좋을 줄 아오. 그래서 오랫동안 썩은 인습에서 내려온 원한도 일소해버리고 금후 튼튼하게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렇게 되면 왕덕삼의 문제 같은 것은 별로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오. 그러한 문제에 일일이 구애될 것 없이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새 고향을 건설하기 위해 오늘날의 괴로움을 달게 받으며 나가게오...(중략)... 마을은 아직도 어둠에 덮여 어스름한 윤곽도 알려지 않는다. 맑은 밤은 벌써 새 날을 잡은 듯 뉘집에서인지 닭울음소리가 흐느러지게 들려온다.<sup>14)</sup>

『선구시대』는, 위에 보인 대로, 이주 조선인 마을사람들은 ‘왕덕삼’의 축출 계획과 이웃 마을 ‘영수평중’들과의 오랜 갈등에 부딪쳐서 그동안 뒹아 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때문에 크게 동요하고 있는 현실을 내보이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이주 조선인 사회에서는 이른바 ‘만보산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이주 조선인들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 살아갈 기반을 이미 상실한 고국 ‘조선’은 ‘결코 갈 수 없는 고향’이었고, 그래서 이곳 만주에서 ‘새로운 고향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위의 인용문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으로 이주민들의 절실한 생존조건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겠는데, 이는 “죽어도 예서 죽고 살아도 예서 살밖에 없는” 「벼」의 현실에 다름 아니다.

『선구시대』의 ‘왕덕삼’은 「벼」의 소현장처럼 중국의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서, 이주 조선인을 일제의 앞잡이로 보고 이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반면, ‘기준’은 「벼」의 찬수처럼 이주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닌

14) 현경준, 『선구시대』, 『滿鮮日報』 1939.12.1. 김장선,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 연구』, 역락, 2004, 159-161쪽에서 재인용.

인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지도자들이다. 「며」의 찬수가 치외 법권 아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면, 기준은 오랫동안 반목하던 마을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시 갈 수 없는 고향만이 고향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만주가 새로운 고향임을 강조하는 기우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선구시대』는 타민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만주에 정착하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내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창결의 「암야」는 초기 이주 조선인 사회에서 빈번히 벌어졌던 매혼(買婚)을 다룬 작품이다. 명손이네는 ‘눈이 모자라게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에서 농사를 지어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을 지니고 만주에 왔으나, 십 년이 넘도록 첩첩산중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명손이는 고분이와 결혼하기 위해 오십 원을 모으려고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고분이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나이 많은 윤주사에게 2백 원에 딸을 팔려고 하고, 이에 명손이는 고분이는 야반도주 계획을 세운다는 비극적 현실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딸 다섯을 매혼하여 부자가 된 후,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최영감에 주목, 이주민 사회 내부의 모순을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집과 식량을 얻기 위해 빚을 얻고, 빚을 갚기 위해 자식을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는 이른바 ‘얼퇴놈’의 만행,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반목하는 이주민 사회의 분열상 등을 통해 고국에서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초기 이주민들의 절박한 생존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얼퇴놈’의 행패로 더욱 피폐해지는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안수길의 「새벽」, 중국인의 비호를 받으면서 동족을 착취하고 간교한 농간을 일삼는 ‘훗지주’ ‘한익상의 폐약을 담아낸 「원각춘」 등의 작품도 이주

조선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만주에서의 정착의지를 꺾진하게 드러내고 있다.<sup>15)</sup>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벼」 『선구시대』 「암야」 등은 이주 조선인들의 비극적 이주사를 재구하면서 강한 정착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설은 ‘협화정신’ ‘왕도낙토’ 등을 널리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시기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 초기의 생존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주 조선인의 참담한 삶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시 말하여, 이들 소설은 ‘협화’나 ‘친일’의 문제가 아니라 만주에서 살아남아 정주하려는 이주 조선인의 생존 방식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 3. 만주국 정책의 허구성과 민족의 현실

재만 조선인 소설은 만주국 건국에서 비롯하는 다양한 사회 상황의 변화, 이주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이주민 사회의 생존 방식 등에 주목하는 동시에 만주국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적으로 담아내는데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주국 초기, 일제는 협화 정신을 내세워 유축농업 장려·금연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일 뿐, 이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날로 가혹해진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 정부·중국 관헌·원주민·마적 등의 수탈도 더욱 기승을 부린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항일 투쟁이 강렬해지면서 재만 조선인사회는 좌·우 대립이라는 이념적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이주 조선인들은 계급의식에 경도되어 공산주의 혁명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민족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 이주 조선인사회는 조선의용군과 광복군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열되고, 상호 반목과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이를 빌미로, 일제와 중국은 이주

15) 이에 대해서는 정덕준, 「안수길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15집, 2004, 참조.

조선인을 위협한 공산분자로 매도하여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조선인사회는 회유와 밀고 등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sup>16)</sup>

신서야의 「추석」은 ‘양곡 출하법’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제시, 만주국이 내세운 이주정책과 협화정신은 구두선(口頭禪)이요 허구임을 폭로한 작품이다. 만주국 건국 이후 당국은 농산물에 대한 사적인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양곡 출하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당시 농민들이 자신이 지은 농산물도 마음대로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정한 가격에 따라 국가에만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악용, 당국은 추수철에 헐값으로 농산물을 수매하고, 춘궁기에 비싼 값에 내놓는 야비한 식량정책을 폈고 이를 무기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추석」은 한 순박한 가장의 파멸을 통해 ‘양곡 출하법’의 가혹한 수탈 현장과 이주민들의 질곡을 폭로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김서방은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 쌀을 팔았다가 사미(私米) 매매 죄에 걸려 곤욕을 치르고, 그의 아내는 그 후 유증으로 병들어 죽게 된다. 이듬해 추석이 다가오자, 김서방은 아내 제사상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자식들의 추석빔을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쌀을 밀매, 아이들 옷감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차(牛車)를 길가에 잘못 세웠다는 죄목으로 순사에게 또다시 걸리게 되고, 한때 서당 훈장을 지낸 김서방은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시조로 읊조리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김서방만의 일이 아니다. 당시 만주국 당국의 각종 법과 규제에 철저히 간섭당하고 억압받는 이주 조선인의 일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경준의 「사생첩」 연작은 이주민들의 비참한 이주·정착 과정을 통해 만주국의 이주정책이란 조선인을 기만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한

16) 신서야의 「추석」(『만선일보』, 1940.8.8-9)을 비롯하여, 현경준의 「사생첩」(『광업조선』, 1938.6) 「사생첩 제2장」(『만선일보』, 1940.8.31-9.1) 「사생첩 제3장」(『문장』, 1941.1-2) 「밀수」(『비판』, 1938.7) 「길」(『춘추』, 1941.6) 「별」(『조선문학』, 1937.5), 안수길의 「목축기」(『춘추』, 1943.2) 「새마을」(『북원』, 1944) 「북향보」(『만선일보』, 1944.12.1-1945.4), 강경애의 「소금」(『신가정』, 1934.5-10) 「유무」(『신가정』, 1934.2) 「모자」(『개벽』, 1935.1) 「어둠」(『여성』, 1937.1-2), 박계주의 「유방」(『조광』, 1943.2) 「육표」(『춘추』, 1942.11) 「딸파리족」(『조광』, 1943.2) 등은 이러한 이주민들의 실상과 전망을 제시한 대표적인 소설들이다.

작품이다. 특히 「사생첩 제3장」은 희망을 안고 만주에 온 금순이 가족들이 동족에게 사기당하고 중국에는 딸을 팔아 차비를 마련하는 처참한 상황을 그려,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현실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도문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국 세관 관리, 만주국 세관 관리, 경찰서원, 경호대원, 헌병, 철도국원까지 한데 댈쳐서 그야말로 물색 틈 없는 경비망”을 통과하더라도 이민증이 없어 다시 쫓겨나고, 검열 과정에서 “몇몇의 혐의자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 ‘왕도낙토’를 홍보하면서 개척 이민을 종용하는 만주국의 이주정책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안수길의 『목축기』와 『북향보』 등은 만주국의 ‘오족협화’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주 조선인사회의 생존 방식과 전망을 그려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안수길은, 이들 소설에서, 이주 조선인들이 만주국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사회적 질곡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작품은 한편으로는 만주국 정책을 수용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단위의 생존을 담보해야 하는 착종과 혼란의 역사적 현장을 배경으로, 당시 이주 조선인의 양립 불가능한 생존 논리와 정착 양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와우산 목장’ ‘북향목장’을 중심으로, 유축농 장려라는 만주국 정책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 조선인의 자립과 자존을 위한 공동체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만주국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목축기』에서, 주인공 찬호는 학생들에게 “지금은 암흑시대가 아니다, 만주에는 아침이 왔다”고 하면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성(省)’이 제공하는 편의’에 따라 목장을 경영하는 등 표면적으로 만주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고국인 ‘조선’에 가서 씨뎀지를 사오고 동료들의 투자로 목장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등 조선인들의 확고한 정착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와우산 목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찬호의 꿈에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목장 경영은 이주 조선인의 정착과

이주민 공동체 건설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북향보』 또한 그러하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정학도는 ‘북향목장’이란 ‘농민도(農民道)’ 실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농민도’란 ‘도혼(稻魂)’ 즉 ‘모포기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마음’<sup>17)</sup>이라고 설파한다. 『북향보』가 논농사를 핵심에 놓고 있다는 것은 목축을 장려하는 만주 당국의 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주 조선인 농민의 정체성을 담보하려는 의지에 다른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들 작품은 만주국 건국 이후 강요되는 정치적 질곡 속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려는 이주 조선인들의 정착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sup>18)</sup>

현경준은 이주 조선인들의 열악한 생존조건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낸다. 1937년 이른바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중국 침략이 전면화하고,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검열제도가 한층 강화되는 시기에 발표된 「밀수」 「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밀수」는 가정 방문을 통해 아이들의 밀수가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확인, 교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찾아나서는 교사 K의 이야기이다.

k는 어쩐지 가슴속이 답답해졌다.

영순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학교에 누를 끼친데 대하여 몇 번이나 거둬 사과한 다음 차츰 저도 모르는 동안에 신세타령을 풀기 시작한다.

「자식을 더구나 공부시키는 자식을 밀수를 시킬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어떻게해서든지 남부럽지 않고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그는 여자의 손으로 혼자서 이때까지 길러왔고 공부도 시켜왔다. 만은 어떻게 하라? 원수 같은 나이가 차츰 들어감에 따라 몸은 쇠약해지고 더구나 신병까지 도져서 자리에 누어버린 이후로는 부득이 어린 것의 밀수로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 그는 지친듯이 살며시 벽에 기대앉는다. 하는 그 모양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럼 영순의 아버지는 안계신가요?」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쓸쓸

17) 안수길, 『북향보』, 문학출판공사, 1987, 252쪽

18) 이에 대해서는 정현숙, 「안수길의 『북향보』론」, 『한국언어문학』 54집, 2004 참조

히 웃는다.

「큰일을 위해 몸을 바친다고 하면서 떠나간 지 벌써 열 두 해가 됐어요」  
K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일어났다.<sup>19)</sup>

위에 보인 대로, 어린 자식의 밀수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난과 질병, 불법 행위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주 조선인의 현실을 목도한 K는 ‘큰일’을 위해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새삼 ‘큰일’을 도모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별」은 「밀수」의 연장선상에 놓인 소설이다. 「밀수」는 내부적 대립과 이념적 갈등이 고조되는 이주 조선인사회의 현실을 꺾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 소설은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는 아이들이 급증하는 이주 조선인사회의 실상을 폭로하는 한편,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계급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 “선생님 그런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나 형들은 밤낮없이 죽도록 벌어도 죽물도 바로 못 얻어먹고 학무위원택이나 장거리 김좌수택은 가만히 놓고도 언제든지 흰밥에 소고기 닭고기만 먹게 됩니까?”<sup>20)</sup>라는 학생의 질문이 그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추석」 「목축기」 「사생첩」 「밀수」 「별」 등은 이주 조선인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 조선인의 불행한 삶을 통해 만주국이 추진한 이주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거나, 자족적인 이주 조선인사회 공동체 건설을 위해 표면적으로 만주국 정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중성을 내보이거나, 이주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자각과 투쟁의지를 드러내는 것들이 그러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불가피한 수용은 이주 조선인들의 생존 방식과 정착의지를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19) 현경준, 「밀수」, 『중국민족문화대계 9』,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0, 232쪽

20) 현경준, 「별」, 같은 책, 454-455쪽

#### 4. 전망 부재와 지식인의 갈등

만주국 건국 이후 이주 조선인들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족 협화’를 주장하는 만주국과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조선총독부 사이의 대립과 알력, 협화정신을 내세우는 만주국 정책과 민족 단위의 생존 방식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직면한다. 만주국은 재만 조선인을 ‘만주국 국민’으로 규정하려는 데 반해, 조선총독부는 ‘제국신민’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재만 조선인들의 권리와 의무 특히 징병제도와 밀접하게 상관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였고,<sup>21)</sup> 그래서 만주국 정부와 총독부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수록 재만 이주 조선인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만큼 만주 정착에 대한 위기의식도 심화된다. 이러한 전망 부재의 사회 속에서 이념 투쟁의 한계에 직면한 일부 혁명가와 지식인들은 깊은 자괴감으로 현실 도피에 빠져들거나, 생계유지에 급급한 이주민들은 마약·밀수·밀매를 일삼으면서 갖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sup>22)</sup>

이 시기의 재만 조선인 소설은 절망과 희망, 반목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시대의 한계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어둡고 혼란한 시기에 대응하는 이주민들의 각양의 삶을 진솔하게 반영해 보인다.<sup>23)</sup> 김창걸의 「청공」, 강경애의 「마약」, 현경준의 「마음의 금

21) 다나카 류이찌, 앞의 글, 68쪽.

22) 일제가 개척 이민을 표방하면서 이주민 인구가 급격히 증가, 1936년까지는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이에 일제는 1937년에 ‘재만 조선인지도요강’을 제정, 동만 지방의 5개 현과 동변도 지방의 18개 현을 만주지역 한인의 주거지로 정하고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던 한인을 강제로 특정지역에 집결시켜 이들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1999, 150-151쪽 참조.

23) 현경준의 「유맹」(『광업조선』, 1939.3) 『돌아오는 인생』(『만선일보』, 1941-1942) 「마음의 금선」(홍문서관, 1943) 「인생좌」(홍문서관, 1943), 김창걸의 「청공」(『만선일보』, 1940.2.11-28) 「거울」(『만선일보』, 1940.7.14-16) 「천사와 요술」(『만선일보』, 1940. 7. 19-20), 황건의 「祭火」(『짜트는 대지』, 1941) 「숨결」(『만선일보』, 1940. 8.3-4), 강경애의 「마약」(『여성』, 1937), 안수길의 「토성」(『북원』, 예문당, 1944), 박영준의 「밀림의 여인」(『만선일보』, 1941.9), 최명익의 「심문」(『문장』, 1939.6) 등은 이러한 사

선」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청공」은 ‘강씨’라는 전직 교사가 돈을 벌기 위해 아편 밀매에 나섰다. 본인과 부인까지 아편중독자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과 재기의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강경애의 「마약」은 마약 중독에 빠진 남편이 아편을 얻기 위해 아내를 중국인에게 팔아넘기지만, 부인은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집에 혼자 남겨진 어린 아들을 걱정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이들 작품에는 당시 이주민들의 암울한 현실과 깊은 절망감이 잘 표출되어 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만주국은 건국 초기부터 「아편법」, 「아편법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아편 통제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금연’ 정책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아편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이권을 장악하고 정부가 아편 전매를 실시하는 제도였다. 「아편 마약 간금방책 요강」 또한 사실상 ‘아편 흡식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책에 의해 아편중독자 등록 수가 급증하자, 일제는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아편 재배지를 확대하는 한편, 금연총국을 설립하고 갱생원을 운영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술책일 뿐, 만주국의 아편 정책은 정부 당국의 경제 수입을 늘이고 민중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켜 일제의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sup>24)</sup>

현경준의 「마음의 금선」(『유맹』, 『돌아오는 인생』<sup>25)</sup>)은 이러한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만주국 당국이 재만 조선인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집단부락과 보도소의 실태, 만주국의 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설은 보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마약중독자·밀수업자·범법자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이주 조선인들

회상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24) 김장선, 앞의 책, 165-167쪽.

25) 「유맹」은 완성작이 아니다. 이 소설은 1941년 11월 1일부터 1942년 3월 3일까지 『만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돌아오는 인생』의 전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소설은 1943년 중편 「마음의 금선」으로 개작하였다. 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은 차광수, 「현경준연구」, 한림대 대학원(박사), 2005, 96-126쪽 참조.

의 타락상과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그린 작품으로, 이주 조선인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마음의 금선」은 작가 스스로 '만주국 정부 금연총국의 위촉'을 받아 창작한 것임을 밝힌 바 있고, 만주국이 운영하는 보도소의 갱생 과정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천일 국책문학'으로 지적되기도 하고<sup>26)</sup>, 만주국 정책 이면을 통하여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sup>27)</sup>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문제적인 까닭은 마약 중독자와 만주국의 금연정책에 대하여 일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지식인들의 양가적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절하게 절망하는 보도소장의 암울한 내면은 그 한 예이다.

왕도락토를 건설하려는 만주국이 아니고는 꿈에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마운 혜택을 모르고 여전히 빗두루만 나가려는 여러분을 대할 때 나는 참 말 세상사가 슬피나서 견딜 수가 없오...(중략)...

보도소장의 말소리는 떨리기까지 하며 점점 울음쪼로 변해간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군중의 표정은 너무나 평범하다. 그들은 제각금 제멋대로 다리를 틀고 앉아서는 혹은 담뱃대를 빼금빼금 빨기도 하고 혹은 걸사랍과 숙은거리기도 하고 혹은 먼 산봉오리우를 흘리가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며 그야말로 소정의 설교에는 오불관심이라는 것이다.<sup>28)</sup>

보도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갱생을 호소하지만, 부락민들은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고, 이 때문에 보도소장은 암담해지고 이주민들의 내일에 대해 절망한다. 보도소장의 절망과 암담함, 이것은 만주국 정책에 부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양가적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망 부재의 이주 조선인사회에 대한 부

26) 조진기, 「만주 이주민의 현실 왜곡과 체제 순응 - 현경준의 「마음의 금선」에 대하여」, 『현대소설연구』 17호, 2003.

27)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김재용(외), 앞의 책, 53쪽.

28) 현경준, 「유명」, 위의 책, 454-455쪽.

정의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일하기 재미나는가」하고 탄말을 묻는다.

「재미가 나서 큰일 났네, 제-길할 이놈의 세상 한 번 벌떡 뒤짚어지는 법은 없나」

「뒤짚어지면 별수 있을 줄 아는가?」

「별 수는 없지만 속은 한번 시언이 풀릴 것 같어」

「객적은 소릴 말게, 골수까지 썩은 놈들에게 시언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시언스럽겠는가?」

「그래두 난 한번 그런걸 보구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네」

한때는 정치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불타는 정열로 날뛰었다는 이 중독자는 지금도 옛날의 그 꿈은 잊을 수가 없는 듯 머어니 창공을 바라보며 저 혼자 중얼거린다.

「두번두 싫다. 단 한번만이라두」<sup>29)</sup>

위에서 보는 대로, 이러한 현실 부정의식은 개작된 「마음의 금선」에서 보다 강화되고 있다. 물론 명우처럼 보도소의 교화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sup>30)</sup>, 그러나 보도소장과 명우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갱생되지 않는 규선, 교사가 되어 달라는 보도소장의 간청을 거부하고 만주국 정부의 통제 아래 시행되는 조선인학교의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인규 등의 현실인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금선」은 명우·규선·인규·보도소장 등을 통해 만주국의 통제 정책에 대한 수용과 부정이 충돌하는 이주 조선인사회를 꾸밈없이 드러내고, 암울한 현실에 처한 이주 지식인들의 양가적 의식과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사실적으로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편 「인생좌」는 일제 말기 지식인의 내적 갈등과 비판적 현실인식을

29) 같은 책, 488쪽.

30) 이 점에 특히 주목하면, 명우의 갱생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지만, 이 작품은 만주국 정책에 부응하는 문학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는 조진기, 앞의 글 참조.

구체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는 새로운 극단을 창단하고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 시국적인 내용을 홍보하도록 강요하는 데, 「인생좌」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일제의 문예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닌 주인공 ‘철’의 갈등을 통해 재만 조선인의 일제에의 저항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만주의 유랑극단을 이끄는 주인공은 당시 국책문예의 집요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비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sup>31)</sup> 그러나 통속극을 선호하는 대중들의 의식 수준, 그리고 이른바 국책 연극을 권장하는 집요한 회유 속에서 ‘젊은 이상에 불타는 예술극단’ ‘인생좌’도 마침내 표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모든 것은 시국의 변천에 따라 급격히 변동되어 가는 형편이다. 극계를 놓고 보더라도 전날의 그 완만한 무기력한 상태로 지나서는 안 된다. 아날 지날 수가 없다. 국가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가고 국민의 생활이 강인한 투쟁을 요구하게 될 때 이전처럼 예술에 있어서도 순수니 지상이니 하고 헛풍만 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다. 무대인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듯이 무대를 전장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야 한다. (중략) 진실로 교양이 있고 굳센 국가와 국민은 예술에 있어서도 훌륭한 투쟁을 적과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건실한 무대를 조직해야 하며 국가총동원의 위대한 그 싸움을 규율있게 분담해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나가야 한다」

한인은 술로 목을 축이고 나서 다시 말을 잇는다.

「우리는 벌써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려고 운동한지가 오래다 관계당국과도 얼마쯤은 타협이 있었고 양해도 얻었다. 이번에 돌아가면 곧 출산시키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냐? 의향이 있느냐?」<sup>32)</sup>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 연극에 발을 디딘 ‘한인’은 주인공 철에게 동참을 권하지만, ‘한인’의 간절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철’은 국책 연극과 상

31)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재용, 앞의 글, 참조.

32) 현경준, 「인생좌」, 위의 책, 570-57쪽.

업적 통속극을 동시에 거부한다. 통속극과 국책 연극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고 예술가로서의 길을 지키는 ‘철’의 자존과 양심은 일제의 문예정책, 나아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식에 다름 아니다.

황건의 「제화(祭火)」 또한 일제의 문예정책에 좌절하는 지식인의 자의식, 당대 사회의 문예정책이라는 현실과 문화청년회가 추구하는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고뇌를 다루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작품은 검열과 통제가 갈수록 완고해지는 암울한 시대의 문예 활동과 그 한계 상황을 리얼하게 드러낸다.

아무리 싸우고 물어뜯고 한탄들 오늘의 압담과 무질서는 처음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보다 진실되려 하고 더구든 미덥고 보람을 가지려하였든 녀제 있어서는 그 어떤 재출발에의 결정적인 결산이 동시에 필요하였든 것이었다. 문화며 문화의 건설이며 이성이며 양심이며 하는 미명 밑에서 환경이며 개성이며 영웅이며 나중에는 영웅을 못가진 세기의 불행이며 하는 것 까지를 각기 이야기하게 되었다. (중략)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모두 무대가 그리웠던 것인줄 아네. 수많은 관중과 관중의 박수가 그리웠드라고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옳겠지...그 무슨 비싼 말들을 처음부터 필요치 않았든 것이네. 진실로 바른 것을 살리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살리지 않으려 하였다기 보다는 바른 것 속에 바르지 못한 것도 넣어 바른 것이 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네... 죄는 시대와 그 시대의 기엽적(奇獵的)인 무지한 관중에 있었던 것이지도 모르지...<sup>33)</sup>

주인공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비가시적 폭력 속에서 문예활동이 교묘하게 파괴당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주인공의 내적 독백이 그것이다. 주인공 김선생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기주’에게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는데, 이것은 만주의 이주 조선인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현실 부정의식의 단면에 다름 아니다.

33) 황건, 「제화」, 같은 책, 581-582쪽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마음의 금선」 「인생좌」 「제화」 등의 작품은 지식인들의 좌절과 내적 갈등을 통해 재만 조선인사회가 직면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는데, 이것은 전망 부재의 이주 조선인사회에 대한 부정의식과 이러한 현실을 강요하는 일제에의 저항의지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 5. 결어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소설에 나타난 이주 양상과 정착의지를 살펴보았다. 재만 조선인 소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만 조선인과 재만 조선인 문학이 처해 있던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유면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주국 건국 이후, ‘오족협화’를 표방하는 만주국 정부와 ‘내선일체’를 강요하는 조선총독부 사이의 대립 갈등 속에서 민족단위의 생존을 위해 이중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주 조선인 사회의 모순적 현실이 그것이다. 이 시기 재만 조선인 소설은 이러한 현실을 꺾진하게 내보이고 있다. 안수길의 「벼」를 비롯하여, 신서야의 「추석」, 현경준의 「밀수」 「별」 「마음의 금선」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소설은 만주국 건국 초기인 1930년대 전반을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930년대 이전의 재만 조선인 소설에서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의 차원에서 이주 정착 과정의 꺾박과 고난 문제에 각별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주 조선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정착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난과 그 극복에 있다는 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한민족인 동시에 이주민(만주국 국민)이라는 이중적 정체성 인식이 여기에서 표현된다. 이들 작품들에 표현된 현실 비판의식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체성 추구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이 시기 작품에 등장

하는 이주 조선인들은 만주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패배하며, 더러는 여기저기를 떠돌며 방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재만 조선인의 정착 문제가 본격적으로 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이다. 이 시기 소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만주국의 협화정책에 대한 동조를 피하면서 동시에 검열당국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선택한 일종의 문학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한반도 ‘조선문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망명문학이라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런 시각은 이주 조선인들의 현실과 정서, 정착 이후에 겪게 된 갖가지 고난을 증언하는 작품들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담보할 수가 없다. 특히 1930년대에 등장한 수많은 신진작가들과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연구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망명문학적 시각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을 한민족의 이주·정착의 역사를 재구해보이는 ‘이주 및 정착문학’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 재만 조선인 문학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과 온당한 평가를 통해 정당한 민족 문학적 자리 매김을 하여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중 조선족 문학 연구에 대한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주 및 정착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을 연구,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도 간과되었던 재중 조선족의 이주·정착사를 복원하는 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된 초기 이주 조선인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증언을 통해 재중 조선족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문학은 비단 ‘한민족 문학’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큰 범주에서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전망을 점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정착하게 된 초기 이주 조선인들의

가치 지향과 조국의식 또는 민족의식을 살펴봄으로써 재중 조선족의 민족사적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 점은 자그마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 재만 조선인 소설, 이주문학, 이주 정착사, 민족문학

K C I

## &lt; 참고 문헌 &gt;

## 1. 자료

- 연변대학 조선어문학연구소(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소설집 현경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 연변대학 조선어문학연구소(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10, 소설집 인수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 연변대학 조선어문학연구소(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11, 소설집 김창철 외』,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 2. 논저

-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1973.
- 권 철, 『광복 전 중국 조선민족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1999.
- 김장선,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의 비교연구』 역락, 2004.
- 김종호, 『일제강점기 만주 유이민 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재용(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 만주학회, 『만주, 통합과 저항 그리고 일상』, 육군사관학교, 2003.
- 박충록, 『조선문학간사』, 연변출판사, 1987.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1999.
-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편), 『김학철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0.
- 오오무라 마스오(이상범 편역), 『〈만선일보〉 문학 관계 기사 색인(1939.12-1942. 10)』
-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 조선인 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1996.
- 유광열, 『간도소사』, 경성, 태화서관, 1933.
- 유치진, 『만주 분산 개척민 촌을 보고』, 『춘추』, 1942. 9.
-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 임범송·권철(편),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 장춘식, 『해방 전 조선족 이민소설연구』, 북경민족출판사, 2003.
- 정덕준, 『인수길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5집, 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 차광수, 『현경준 연구』, 한림대 대학원 박사), 2005.
-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1999.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1937-1945년간의 한국소설과 식민주의』, 소명출판, 2005.
- 홍아협회(편), 『재만 조선인 통신』, 봉천, 홍아협회, 1937-1944.
- 任晨慧,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인 문학의 역사』, 법정대학출판국, 1994.

[Abstract]

## A Study of the Korean Novel on Manchuria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 Focus on the Aspect of Immigration and Resettlement Process —

Chung Dukjoon · Jung Hyunsook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immigration pattern and settlement process of the Korean immigrants described in the Korean immigrant literature on Manchuria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by doing so,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Korean immigrant literature on Manchuria and the meaning of a national literature.

The Korean immigrant literature on Manchuria described the tragedy of the early Korean immigrants as well as a strong intention for resettlement in Manchuria.

An Sugil's "Byu" "Bookhangdo", Kim Changgul's "Armya", Hyun Kyungjoon's "Sungusidae" are the representative literature. Besides, the Korean immigrant literature on Manchuria criticized on the Manchuria's policy and expressed strong resistance toward it. Sihn Seoya's "Chusuk", Hyun Kyungjoon's "Milsoo" "Byul" are the exemplary literature on the above described critique and resistance. Furthermore, these literature criticized the contradiction of Manchuria's policy through the phenomena of drug addiction and articulated a despair of the intellectual. Those characteristics are well described in Hwang Gun's "Jehwa", Kang Kyungae's "Mayack", Hyun Kyungjoon's "Mayemye kumsun", Choi Myungik's "Simmoon".

All of these literature realistically described the migration experience and

resettlement process by focusing on the various life styles and experiences of the Korean immigrants on Manchuria.

**Key words** : Korean Novels in Manchuria, Immigrate Literature, History of Immigration and resettlement, National literature.

---

정 덕 준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전자우편 : [djchung@hallym.ac.kr](mailto:djchung@hallym.ac.kr)/  
[nawoori21@naver.com](mailto:nawoori21@naver.com)

---

정 현 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전자우편 : [junghs5@hanmail.net](mailto:junghs5@hanmail.net)

---

K C I